서울대 일본연구소 제14회 연구집담회

일본 홋카이도의 지역개발 담론과 관광이미지의 형성 - 전후 고도성장기 대량관광에서 포스트모던 관광까지

일시: 2010년 4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장소: 서울대 국제대학원 GL룸

사회자: 서동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발표자: 조아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토론자: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표내용 ◆

이 논문은 <문화역사지리> 4월호에 게재예정.

2007년 학위논문 작성 당시에 아이디어 구상. 홋카이도 자체가 정리가 어려운 지역. 한국의 약 83% 정도의 면적. 총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리. 학위논문 연장선상에서 연구의 시작이라는 입장에서 정리.

관광을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의 진지한 영역인가라는 주위의 의문들이 있었음. 1995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관광,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관광은 차이의 공간, 상상의 지리, 정체성의 구성 등에서 중요한 키워드. 최근 연간 2~3회 관광. 타지역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중요한 소재. 또 지역개발의 한 계기로서 관광의 의미가 활성화. 지자체의 역사, 문화, 생태관광 등 지역개발론이 강조됨.

관광객의 형태 - 소비, 차이 - 에 대한 연구; 관광경관에 대한 연구(장소마케팅, 관광지의 차별화 추구); 관광지 이미지 연구(마케팅전략 수립)

이에 앞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관광이미지가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공간적 함의 속에서 재고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연구지역으로서의 홋카이도 소개(생략).

홋카이도 이미지: 눈덮인 호수, 해산물, 이국적 동식물상, 아이누문화.

연구자료: 잡지 <타비(旅)>(1955년 이후 17회); 총합개발계획

<문헌연구>

지역담론: '관광지가 무엇이라 정의되는가'(가이드북, 여행잡지 등)

개발담론: 관광지를 구성하는 제도적 실천과 과정(개발계획, 마케팅; 총합개발계획)

● 홋카이도 관광이미지의 시대구분

(1) 전후 대량관광시대(1950~60년대) - 1920년대~30년대는 외화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관광이 국가정책으로 추진. 1950년 '삿포로 유키마즈리' 개최 이후 활성화. 자위대에 시설 대부분을 의존. '타비'의 이미지(원시적 자연에 대한 동경, 쓸쓸한 풍경, 땅끝 봄, 신비적인 원시경). (a) 원시적 자연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습지. 꿈 이미지. 호수(손 닿지 않은 자연의 이미지). 화산. (b) 개척지의 험난함과 낭만의 이미지. 둔전병과 개발. 삿포로의 시계탑이 개척 이미지의 핵심(삿포로 농학교가 그 전신). 삿포로 농학교 초대교장 클라크 동상("boys be ambitious"). (c) 아이누 관광의 이미지. 여성화/타자화된 이미지. '타비'의 기고자는 엘리트들(동정적, 시혜적 시선). 다만 아이누 민족의 소멸(동화)은 당연시됨. (d) 이국성(유럽적 경관; 낙농과 사일로(silo))

(2) 지방의 재발견, 고향관광의 시대 - (a) 일본의 국내관광에서는 전환기. 경제적 풍요로움에서 삶의 질로 관점 전환. 오사카만국박람회(1970년)가 계기. 국철에서 시설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 'discover japan'이라는 캠페인을 펼침. 일본 내부의 지역관광을 활성화. '타비'에서 개척100년 기념호 편집. (b) 홋카이도 안에서 피상적인 홋카이도 관광에 대한 반성이 제기됨. 관광대상이 아이누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누 문화로 전환됨. 시선 역시 아이누인 스스로의 관점에서 서술되기 시작. 아이누인에 의한 아이누박물관, 자료관의 설립. 아이누 의례, 춤 등이 재발굴되어 1984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되기도 함. 아칸의 아이누 마을(1950년대 조성). 주체적인 자각. (c) 홋카이도 자연의 독자성으로서의 '寒地' 이미지. 땅끝, 북극, 유빙(遊氷)의 이미지. 와카나이 지역과 사할린(땅끝 -> 사할린과 교류할 수 있는 최북단 지점). 개썰매대회(1984년 시작) 및 그 체험공간.

(3) 포스트모던 관광의 시대 - 1990년대 이후. (a) 여행주제와 관광지의 다양화(친환경과 차별화된 소비). 꽃과 체험이 강조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자연(꽃관광 강조). 포근함과 따뜻함이 강조됨. 2005년 시레토코의 세계자연유산 등록. 이전에 추위와 비경을 강조하던 것이 따뜻한 공간으로 이미지 전환. (b) 아이누 문화관광(자연공생의 가치관 확산). 음식문화 주목(지혜가 담긴 건강음식; 홋카이도에 적합한 건강한 문화라는 이미지). 소비중심적 이미지로 재편. (c) "아이누 음식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등. 민족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다소 희석화되는 경향. 전통의 복원이라는 기치 아래 식용식물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d) 고향, 추억 등 낭만적 이미지의 확산. 오타루(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 -> 낭만적 이미지로 재조정). 밤에 촛불이나 화롯불을 피우는 이미지로 낭만성을 극대화. (e) 웅대한 자연 이미지는 여전히 지속 중. 공모를 통해 '시험받는 대지'라는 문구가 선정됨. 개척 이미지의 지속.

● 지역개발담론

"둔전병 - 자유와 독립 - 프런티어 정신"이라는 슬로건 cf: 국가주의적 동원 담론.
아이누에 대한 차별적 시선 -> 전후 홋키나와에 대한 시선에 영향

(1) 홋카이도 개발법(1950년) - 유일하게 남은 '외지'의 이미지. 에너지 기지, 식량기지, 유입인구 수용지로서의 역할. 지역차원에서 총합개발계획을 세운 것은 홋카이도가 유일. 홋카이도 내부의 사람들의 생활과 유리된 채, 외부적/외삽적 시선이 투영됨.

(2) 1970~80년대(지역주의와 독자성) - 고도성장이 끝나면서 공공사업식 개발단계 종료. 국가개발투자에 안이하게 의존해와서 경제체질이 약화된 것이라는 담론. cf: 국가경제부흥을 위해 희생되어 온 것이 훗카이도 개발의 실상이었다는 담론. 후진성 문제가 아니라, 북방적 지역사회와 그 잠재력에 주목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북방권, 문화권 강조. 관광과 여가. 북방권 담론(1970년대 서구 선진국가의 북부지역과의 교류 -> 1980년대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 최근 아시아교류). 아이누 민족운동과 관광(1997 아이누문화진흥법).

(3) 최근(6/7기 계획) - 구조개혁 이후, 프런티어정신 / 지속가능성, 자연공생, 친환경 / 아이누 문화정책 / 관광 / 아시아 교류 및 관광의 다양화 추구. 일본경제의 구조개혁 이후 지역자립적 관광(소프트웨어)을 추구. ‘웅대한 자연의 은혜’ 이미지 강조. 토야코 서미트(2008년). 외국인 방문객 12만(1997) -> 71만(2001). 대부분은 아시아 관광객(88%).

결론:

“관광은 상상의 지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공간의 사회적 구성론)

“관광지는 문화담론과 제도실천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지역담론/개발담론)

◆ 토론자 토론내용(노영순) ◆

근래 지리학 안에서의 관광연구 경향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 (1) 후기자본주의의 소비사회에서 관광학은 정치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 공간을 사는 행위, 여가시간의 확대. 그 행위의 의미,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의 필요성.
- (2) 지역연구. 지리학과 안에서 지역연구가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어 온 측면이 있었음. 지역연구에서도 개성기술적 차원에서 맥락중심적 서술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상황.

1. 장소이미지(place image): 발산과 수신(수신)의 두 차원을 나눠서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장소성(placeness),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은 어떤 개념적 관계 속에 있나? 개념정리가 필요함. 왜 굳이 ‘이미지’인가?

2. 장소자산의 선별과 상품화. 장소마케팅, 장소브랜딩(branding). 특정요소의 선별과 다른 요소의 배제. 주체 간 경합의 문제. 지역계획과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 협력적 계획이나 로컬거버넌스. ‘책임있는 관광’은 어떤 개념인가? 공정여행(착한 관광)을 통상 ‘책임관광’이라고 보는데, 이와 어떤 관계가 있나? 개념적용을 좀 더 신경써야 할 듯.

◆ 답변 ◆

1. 장소냐? 지역이냐?:

장소는 개인의 경험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지역은 개인경험을 넘어서서 세대간 연속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 그래서 장소보다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음.

‘이미지’는 주관적인 것. ‘정체성’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구성된 것+동일시. 지역주민의 자기이미지의 문제는 제외했기 때문에 장소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회피.

<타비>라는 잡지 성격 - 관광지과 관광객을 매개하는 잡지 - 은 홋카이도 이미지를 판매/구매하는 사람들에 의한 잡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로 파악.

2. 통상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시작했지만, 개발계획과 지역민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봄. 저자는 좀 더 나아가 지역 내부의 관계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 플로어 질문과 답변 ◆

(사회자) 일본지역연구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논점이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김효진) 지역담론과 개발담론을 구태여 나눈 이유는? 그런 구분을 통해 이 논문이 얻는 효과는 무엇? 개발에 의한 지역담론의 반영적 서술로 이 논문이 서술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discovery japan’의 발상은 중심적, 이 속에서 홋카이도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홋카이도의 서구, 낭만화된 관광은 최근 유럽 직접관광을 통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있다는 사실. ‘타비’라는 잡지의 성격과 부수?

(조아라) 구분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나눈 것에 불과. 다양한 개발계획이 존재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총합개발계획>만을 다룸. 한계는 인정. ‘discovery japan’은 고향 이미지를 발견하려 함. 홋카이도의 이미지는 대지, 낭만적 목장이기는 하지만 서구의 목장이기보다는 일본적 시골체험을 강조하는 패턴으로 구성됨. ‘타비’는 독자가 불분명한 잡지. 오사카만박까지만 해도 영향력이 컸으나 그 뒤는 영향력이 희미해짐. 전반적 독자를 대상으로 했고, 시계열적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택.

(임채성) 일본전체 관광산업 안에서 홋카이도 관광이 지니는 특징? 관광산업이 홋카이도 내에서 차지하는 시기별 의미? 서술에서 지역개발담론이 먼저 서술되고 이미지는 뒤로 뺐으면 어땠을까?

(조아라) 현재 관광산업에서 1위는 홋카이도 2위는 오키나와.

(사회자) 시기구분이 지극히 상식적. 홋카이도의 시기구분이 많이 부합되었던 것처럼, 익숙한 시기구분을 구사했는데,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의 시기구분이 좀 다른 측면, 역동성의 차원이 있지 않았을까? 홋카이도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구분이 필요하지 않나?

(조아라)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지극히 당위적. 예컨대, 1980년대 리조트 건설 문제는 오히려 포스트모던 관광과 가까운 사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기구분을 한 느낌을 필자도 가지고 있음.

(임채성) 산업의 차원에서는 지극히 당연.

(노영순) 어느 차원이 중심되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아이누가 핵심이라고 생각됨.

(조아라) 시기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했던 것은 있었음. 그러나 관광의 기반은 경제라고 봄.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미지의 저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평가.

(박동성) 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적이고 산업과 관련된 언어. 에도시대에도 관광이 있었고, 그렇다면 '타비'와 '관광'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차이? 관광객으로서는 관광이란 이(異)공간. 지리학 안에서 이런 개념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조아라) 개인적으로는 '타비'와 '관광'을 구분하는 것은 엘리트적인 것 아닌가 생각함. 구태여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전통 에도시대에 일본 내의 타비와 홋카이도의 타비 경험은 분명히 달랐을 것. 이(異)공간 논의는 노영순 씨가 더 자세한 답변을 줄 수 있을 듯.

<끝>